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

작년 중순부터 올해 중순 까지 약 1 년간 인턴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돈이 있으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학생 땀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택시를 타서 시간은 줄었지만 돈은 배가 더 들었으며 돈의 편안함과 만능성을 느끼어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연봉이 높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돈’의 마수가 어디에서도 펼쳐졌다. 물질만능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교과서에서 들어오던 말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도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해졌다. 책을 읽고 내 자신이 생각해본 것들을 서술하였다.

첫째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다. 처음엔 시간은 없지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여겼지만, 대리로 줄을 서서 입장한 곳이 음식점이나 구매가 아닌, 자신의 이권을 발휘하여 반대파의 의견을 묵살하는 공청회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권을 가진 사람만 참석하고 그 반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니 독재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일이다. 게임이라 하면 그 사람이 죽음을 예측하거나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보험 권리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생명 윤리라는 개념도 이제 물질 앞에 안개가 되어버려 나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찾는 건 어려워졌다.

세번째로 기업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일이다. 돈이 많은 기업이 학생의 학업과 복지에 도움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기업은 손해 나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학업 도구에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그들을 각인 시킨다. 그 전엔 CM 송으로 각인 시켰지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그들의 물건을 홍보하였다.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교육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비판하여 발전 할 수 있는 수단’ 이라고 읽었다. 하지만, 기업의 도구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비판할 수 있을까?

책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인데 실제 읽어보니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들’로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아직 돈으로 살 수 없는게 남아 있을까’ 라는 내 자신의 의문점이 있었지만, 아직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